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QR코드로 '소중한 진심' 바로보내기 | 기부상담 080-890-1212 | ARS기부 060-700-1212

사랑의열매

2023
01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ba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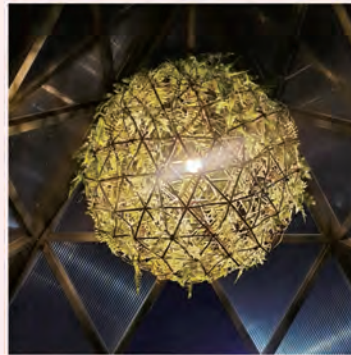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2관왕 추식이 왔어요.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 조손 가정에 쌀 지원. 연말을 맞아 한정 굿즈로 정을 나누어보는 건 어떨까요? (광고 같은 멘트지만 내돈내산) @kakaofriends_official #추식이 #choonsik #사랑의열매 #추식이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배지 #추식이배지 #카카오프렌즈

sosomi2022_jinsol



추운 날씨 사랑의온도탑과 함께해요~ #울산광역시 #사랑의온도탑 #나눔캠페인 #시청햇빛광장

wns1105



부끄럽지만 작은 나눔을 하고 보니 뿌듯함도 알겠고, 고마움도 일아가고 있어요. 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어떡신가요? 모두 같이 따뜻한 연말 보내봐요~^^ #봉사 #연말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 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나눔을 통해 제가 느낀 행복을

더 많은 분이

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인비

Park Inbi
박인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로 골퍼 박인비 선수는 2016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열매 고객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한편, 대회 상금 일부를 골프 꿈나무, 난치병 어린이, 유기견 보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9 2023. 1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방송인 김나운, 오세훈 서울시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팍페라 테너 임형주, 나눔리더 김소연·박창욱 부부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3년 1월 / 통권 18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착한기업

하나로 연결된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08

희망2023나눔캠페인 스토리

16

모두의 나눔

고립된 이웃까지
더욱 세심하게 돌봅니다

22

아너 소사이어티

사랑의 일일 산타로
행복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2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심리 정서 지원 사업
'청년 공감 플랫폼'

28

내 인생의 한마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300호
경남정보대학교 김대식 총장

32

매슬랭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진짜배기
경기 북부 맛집

36

FUN한 나눔

38

나눔 이슈

- ① 국회의원실 착한ilter 1호
강훈식 의원실
- ②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
우리금융미래재단 민간 협약 체결

40

지역의 나눔 소식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세종

52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4

전국 지회 뉴스

64

클라우드펀딩

고양시대문화대안학교
힐링 문화 여행 펀딩 후기

하나로 연결된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나눔과 봉사로 하나 되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성장에는 가치 중심 철학이 자리한다.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행복한 금융을 꿈꾼다.

글강보라 사진 이승재, 하나금융그룹제공

매년 11월 11일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 활동인 '모두하나데이'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모두하나데이'는 사명인 '하나(1)'에서 따온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해 1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에도 희망 2022나눔캠페인보다 3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문제 신속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힘을 보탰다. 하나금융그룹은 성장 이익을 함께 나누고, 금융으로 하나 되어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 하는 활동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나눔으로 사회적 약자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행복한 금융’으로 주목받는 하나금융그룹만의 사회 공헌 철학은 무엇인가요? 하나금융그룹의 존재 이유를 담은 미션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금융그룹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매년 거액의 성금을 증액 기부하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온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스포츠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부터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100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100개의 어린이집 대상지 선정 완료 후 65개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향후 약 1만 명의 아동이 보육 혜택을 받게 되고, 보육 교사 등 직간접 일자리 5,500여 개가 생기는 등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노력이 작게나마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금융에서도 취약 계층과 동반 성장을 선언하며 가치 중심의 성장 철학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민생 안정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금융이 먼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5년간 1조 원 규모의 사회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눔 파트너로서 사랑의열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의열매는 국내 최고의 기부금 모금 및 배분 기관으로,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와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 진행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추진하는 등 하나금융그룹의 파트너로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추운 연말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출근부터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온기를 불어넣고, 추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도 어려운 경제 환경이 예상되지만, 사랑의열매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ESG 전략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로 하나 되다

1998년부터 축구 국가 대표팀의 공식 후원 은행인 하나금융그룹은 '축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 활동으로 친환경 ESG 공동 캠페인 '그린킥오프'와 이동 약자를 위한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캠페인을 꼽을 수 있다. 그린킥오프는 K리그 구단의 탄소 배출량 및 경기장 내 일회용품 사용 감소 수치 등을 측정해 절감한 탄소량만큼 친환경 기부금을 조성하는 탄소 다이어트 사회 공헌이다. 이렇게 조성한 기부금은 K리그 연고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

기 위한 친환경 교육 및 참여 활동 등에 활용해 환경 선순환을 이어간다. 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도 국내 프로 축구 경기장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이동 약자를 위한 K리그 경기장 모바일 안내 지도'를 제작해 K리그 8개 경기장의 동선과 입장 게이트, 화장실 및 매점 등 주요 시설을 안내하며 스포츠 관람 장벽을 낮추는 사회 공헌 캠페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를 벌임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K리그 축구 관람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어, 안녕!' 한류 열풍 있는 한국어 교육

하나금융그룹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 교육 지원에도 각별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과 예술(춤, 노래, 연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플래닛2050'은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10개국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청소년



뮤지컬 공연단이다. K-팝 창작 뮤지컬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뮤지컬 무대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작 뮤지컬 주제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탄소 중립 등 기후 환경으로 2050년이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다문화 청소년이 환경 전도사로 나서 모두에게 동참하길 호소한다. 뮤지컬 단원은 연습 중에도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으로 일상에서도 기후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며 꿈을 키운다. 한국어 교육과 예술·환경 운동을 펼치는 원플래닛2050은 단원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2022 해외 청소년 한국어 교육 연수도 손꼽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한국어, 안녕!'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32개국 100여 명의 청소년을 초청했다. 각국의 청소년은 수준별 한국어 강의로 조별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회 및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공연하며 살아 있는 한국어를 경험했다. 이처럼 국적과 인종이 달라도 한국어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힘으로 앞으로의 세상이 더 크게 활짝 열리길 바라본다. 🍀



1 K리그 '무장애지도' 제작으로 이동 약자도 축구 경기장에 자유롭게 방문해 경기를 즐길 수 있다. 2 원플래닛2050 단원들이 무대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다. 3 전 세계 32개국 100여 명의 청소년이 하나금융그룹의 초청으로 한국 문화와 선진 금융을 경험할 수 있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전달하는 대한민국 나눔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대한민국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이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 목표액 4,040억 원에서 모금 1% 달성 시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뜨거운 나눔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클강보리 사진이승재



나눔의 열정으로 매서운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온도탑이 100도를 향한 나눔 대장정을 시작했다.



따뜻한 나눔, 소중한 진심을 전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이하 희망나눔캠페인)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이웃 돕기 집중 모금을 시작했다. 행사를 진행한 2022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도 일제히 62일간의 나눔 여정에 돌입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홍보대사인 배우 김나운과 팍페라 테너 임형주가 참석해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탰다. 사랑의온도탑에 모인 진심은 매년 100도를 웃돌며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와 희망을 전해왔다. 22년 동안 8조 원 이상의 기부액으로 뜨거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나눔의 길을 인도하며 모두와 함께 달려온 시간이다. 이번 희망나눔캠페인에는 개인 기부자 대표인 서울 광진구 1호 부부 나눔리더 박창욱·김소연 부부가 성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10년 안에 1억 원 기부를 목표로 세우며 '육연부부 나눔의 손길'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는 모범 가정이다. 법인 기부자 대표로 나선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이웃사랑 성금 160억 원을 기부하며 "오늘의 작은 온기가 나눔의 불씨로 퍼져나가 한겨울 추위를 이기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의 성금은 3만 1,000여 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적재적소의 나눔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만 40만 명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사랑의온도탑이 순도 100%의 진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본다.



1 개인 기부자 대표로 나선 박창욱·김소연 부부가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2 희망나눔캠페인에서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오른쪽)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전달식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을 맞아 대통령은 물론 4부 요인이 이번에도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온기를 더한 전달식 현장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2022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사랑의열매 기부금과 윤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우리 사회의 빛이자 희망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에게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각 성금을 전달하며 뜻깊은 나눔이 이어졌다. 8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성금을 전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기부금과 메시지를 전달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2 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전달식 및 성금 전달식 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전달식 및 성금 전달식 4 한덕수 국무총리 사랑의열매 전달식 및 성금 전달식 5 김명수 대법원장 사랑의열매 전달식 및 성금 전달식

함께 만드는 나눔 온도 100도

지상파 3사 모금 특별 생방송

지상파 3사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힘을 보태고자 특별 생방송을 편성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전국 곳곳에서 모인 사랑 덕분에 희망나눔캠페인의 나눔 온도를 높일 수 있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MBC 이웃사랑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2022년 12월 8일 방송된 <모두의 나눔>에서는 위기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랑의열매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또한 성금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는 자원봉사, 스타들의 재능 기부가 더해져 탄생한 나눔 굿즈 상품까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돕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었다.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230분에 걸쳐 진행한 특별 생방송에는 부산, 대전, 전주 등 각 지역을 연결해 기부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사리손으로 저금통을 기부한 어린이부터 팬클럽, 운동선수, 청년 사업가 등이 온정을 나누며 열기를 더했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이 각각 1·2부에 참석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부탁했다.



SBS 희망TV 특별 생방송 <함께하는 나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022년 12월 23일에 방송한 SBS 특별 생방송은 적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혼자서 가족 돌봄의 무게를 감당해온 그들을 발굴하고,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소개됐다. 이 외에도 희망2023나눔캠페인 팬덤 기부 1호로 선정된 가수 영탁 팬클럽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다양한 팬덤 기부 사례도 전파를 탔다.



사랑의열매 귀염둥이는 바로 나!

열매둥이 매력 포인트 집중 탐구

열매둥이와 열매순이의 뒤를 이어 사랑의열매 마스코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열매둥이. 나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등장해 사랑의열매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활동 범위를 넓히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김남규



사랑의열매 직원 손끝에서 탄생

열매둥이는 지난 2019년 사랑의열매 사내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총 42건의 캐릭터를 제출했고, 이 중 6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사랑의열매 직원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투표까지 모두 종합한 결과 열매둥이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총 1,019명이 참여한 투표 심사에서 511표를 얻으며 5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언제나 내 곁엔 열매둥이

열매둥이의 초록색 망토에서 알 수 있듯 슈퍼히어로 콘셉트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 달려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친근한 모습의 일상 밀착형 캐릭터 이미지를 살려 출시 당시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MZ세대의 마음에 쏙~

열매둥이는 메신저 이모티콘은 물론, 다양한 상품에도 활용하며 사랑의열매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업과 협업하며 콜라베이션 굿즈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 MZ세대들이 주목하는 브랜드 굿즈를 전시하며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오브젝트 바이 프로젝트'에 유일한 비영리 기관으로 참여하며 캐릭터로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매둥이를 만나요

이번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온도탑 옆에 굿즈 쇼룸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이 열매둥이를 활용한 안마봉, 얼굴 쿠션, 박인비 선수 사인 골프공, 미니골드와 함께한 러브 체리쉬 컬렉션 등 다양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열매네컷 포토 부스도 있어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편, 해당 수익금 모두 기부가 되므로 나누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굿즈 쇼룸과 열매네컷 포토 부스는 2월 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아너 소사이어티 3000호 & 착한가게 4만 호

“지나온 길이 곧 나눔의 역사”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와 매출 일정액을 정기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각각 3000호, 4만 호를 달성한 것.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까지 사랑의열매와 모두의 성원으로 일군 '나눔의 역사'다. 클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 충남 천안시 42개소가 정기 기부를 약속하며 전국 4만 호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17년 만에 전국 착한가게 4만 호

2022년 12월 9일 충남 천안시 42개소가 착한가게에 단체로 이름을 올리며 희망2023 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를 뜨겁게 올렸다. 이는 희망나눔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한동훈 단장 등이 착한가게를 적극 발굴한 결과다. 가입식에는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충남 사랑의열매 김호택 부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70여 명이 함께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황인식 사무총장은 “사랑의열매는 착한가게 4만 호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이번 희망2023나눔캠페인에서 나눔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사랑K프렌즈' 회원 및 회원 가족 13명이 동시에 아너로 가입하며 전국 3000호 아너 회원이 탄생했다.

키워드로 보는 아너 소사이어티 역사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랑의열매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 출범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지역으로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1호 회원 아너 소사이어티 출범 후 6개월이 지나도록 1호 회원을 유치하지 못해 근심이 컸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 8일 유닉스코리아남한봉 대표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마침내 1호 회원이 탄생했다.

3000호 회원 1호 회원 탄생 이후 2015년에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이 1000호, 2018년 제너럴바이오·지류 서정훈 대표가 2000호로 가입했다. 이번 3000호 달성은 출범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한국적 정서 아너 소사이어티는 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개인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패밀리 아너, W아너, 고인을 추모하는 사후 가입 등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

13명 동시 가입, 아너 3000호 가입식

2022년 11월 23일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모인 '문화사랑K프렌즈' 회원 및 회원 가족 총 13명이 아너에 가입해 3000호 탄생과 최대 규모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문화사랑K프렌즈는 지역에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과 개인이 결성한 단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예술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등 부산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3명의 가입자 중 3000호 아너 회원은 영산대학교 노찬용 이사장으로 “앞서 가입한 2,999명 아너 회원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고립된 이웃까지 더욱 세심하게 돌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경기 침체 등 사회 곳곳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많은 이의 근심이 깊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 계층이 받는 타격은 더 크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훈



11인 고립 가구를 발견하고자 전수조사에 나선 지역 주민들 2대인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목공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3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활동 중인 주민 발굴단 '만발이의 힐링 캠프'

중장년 1인 가구의 지역사회 동행 체계 구축 및 대안 가족 공동체 형성 '만덕아름프로젝트'

최근 중장년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게 된 이들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해 끝내 건강이 악화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럼에도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부터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만덕아름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1인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종합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발굴한 1인 가구 2~5명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 가족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긴급 구호 지원 시스템 구축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에 상담을 요청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성과 헤어지면서 불안한 신분으로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처한 미혼모들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외국인 미혼모 여성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기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다.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와 무국적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와 긴급 출산용품·양육·교육 및 돌봄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하도록 법률 지원도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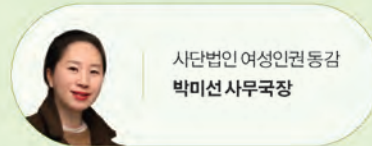
1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 동감을 찾은 미혼모 외국인 여성의 상담 진행 모습



3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여성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한다. 4 제도적 개선을 위해 열린 정책 제안 토론회
5 여성과 아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 6, 7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의 현실을 알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ini Interview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를 주목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2019년도 미혼모 긴급 지원 활동 소식을 접한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의 지원 문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장 지원을 통해 이들이 국내 미혼모와는 다른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 동감에서는 국가와 인종 등을 떠나 최대한 임신부와 아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긴급 의료비 및 아기

생계 물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해당 사업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동감은 생명과 직결되는 '임신·출산·양육'은 어떠한 조건이나 외국인 등록 여부를 떠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구조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장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한 부분입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가정 지원은 일부 NGO 단체에서 모금한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

니 긴급한 상황인데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이러한 현장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혁신적인 지원으로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했고요.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나요?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민관 협업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적절하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시설과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양주시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문화 예술 창작 교육 플랫폼

‘놀터(놀며 즐기면서 배우는)’

자주지역아동센터는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 교육의 가치를 주목했다. 문화 예술 교육은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감과 자존감 향상, 긍정적 태도 형성, 스트레스 및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 나아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자주지역아동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에 선정돼 2022년부터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은 돌봄 취약 계층 청소년의 문화 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뮤지컬 교육, 청소년 문화 예술 플랫폼 ‘놀터’ 제작, 청소년 문화 예술 공연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특히 뮤지컬 교육은 대본, 연기, 안무 등 6개 분야에 총 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결과물은 영상물로 제작, 놀터 플랫폼에 업로드해 추후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포트폴리오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1 지역 문화 축제에 초청받아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는 청소년들 2 직접 만든 뮤지컬 공연을 펼쳐며 청소년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3 뮤지컬 교육에 참여 중인 청소년들



Mini Interview



자주지역아동센터 전모연 센터장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중 뮤지컬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뮤지컬은 아이들이 각자 성향에 맞게 경험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표정 연기에 자신 있으면 연기팀, 글쓰기에 관심 있으면 대본팀,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음악팀, 그 외 안무팀, 촬영팀, 홍보팀까지 총 6개 팀 중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터 플랫폼을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화 예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전문 강사를 섭외해 진행한다고 해도 한정적 예산으로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으로 문화 예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보니 시공간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영상을 반복 시청할 수 있어 역량을 키우는 데 좋다는 점 등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플랫폼 제작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요? 기존 문화 예술 사업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극을 예로 들면 강

사가 대본을 준비한 뒤 역할을 나눠 아이들에게 대본을 외우게 하고, 연습한 후 무대 발표회로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사업은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이 조금 서툴고, 결과물이 투박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문화 예술 플랫폼 사업 자체를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눔과꿈 지원 덕분에 아이들과 상상만 하던 것을 실현할 수 있어 꿈만 같았습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대로 진행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W아너 소사이어티 크리스마스 봉사 활동

“사랑의 일일 산타로 행복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2022년 12월 21일, 서울 용산에 자리한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는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4명의 W아너 소사이어티(이하 W아너) 회원들은 일일 산타로 변신해 선물 봉사에 나섰다. 글강보라 사진이승재

선물 포장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W아너들. 부산지회 이정화 W아너의 제안에 따라 촬영 전 “멀치 대가리”를 외치며 모두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W아너들은 혜심원 아동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W아너의 ‘함께라서 행복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는 시작부터 그야말로 축제였다. 선물처럼 내린 함박웃음에 3년 만에 재개한 외부 행사로 너나없이 설레는 마음이었다. 행사가 열린 혜심원은 1세 영아부터 19세 고등학생까지 52명의 아이가 집으로 여기며 생활하는 터전이다. W아너들은 행사 전 혜심원 아이들에게 전달할 운동화와 간식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적었다. 준비한 선물은 아이들이 직접 고른 브랜드의 운동화로 지원 예산만으로는 원하는 신발을 구매할 수 없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정했다. W아너를 맞이한 혜심원의 권필환 원장은 “사랑은 항상 순환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봉사와 사랑 없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을 표했다.

17명의 혜심원 아이와 얼굴을 마주한 W아너들은 텔레파시 게임, 협동 컵 쌓기 등의 놀이를 즐기며 친구처럼 친근하게, 때로는 엄마처럼 다정하게 다가갔다. 대구에서 온 김기호 W아너는 “구김살 없이 밝고 환한 아이들 모습에 도리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혜심원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우리 집’이다. W아너 산타의 선물과 사랑으로 더욱 따뜻한 ‘우리 집’이 완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순환하는 사랑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우리 집’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

INTERVIEW

“W아너 활동으로 예상치 못한 사랑과 감동을 발견합니다”



W아너 송주은 총리더 (BT&I 대표이사)

첫 번째 여성 아너이며 W아너 클럽의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여성들의 나눔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성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다양한 분야와 연령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눔에도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여성의 나눔은 상대를 생각한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W아너들과 함께 한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W아너 모임 이후 각 지역 W리더들이 자체적으로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울산에서는,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TV에서 W아너들의 활동을 발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고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W아너들과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700명에 가까운 W아너가 있는데, 더 많은 여성과 함께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 아너를 넘어 부부 아너, 패밀리 아너까지 가족 단위의 나눔 활성화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 2023년에는 W아너 총리더로 전국을 돌면서 구체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나눔 단체로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립할 생각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포장하는 (왼쪽부터) 손웅연, 조현욱, 김순희 W아너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심리 정서 지원 사업 '청년 공감 플랫폼'

“이제 나 자신도 돌보고 싶어요”



아직은 가족의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한 가정을 책임진 청년들이 있다.
가장으로 짊어진 무게에 눌러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서울특별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가족 돌봄 청년을 아시나요?

2022년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립신목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신목사회복지관) 교육원에서 진행된 바리스타 수업 현장을 찾았다. 수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거품을 내며 커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처음 만들어본 라테와 카푸치노 등을 서로 맛보고 평가하며 웃음꽃이 피었다. 이 수업은 신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심리 정서 지원 사업 '청년 공감 플랫폼'(이하 영케어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신목사회복지관은 2022년 8월부터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 돌봄 청년, 즉 영케어러란 장애·질병·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말한다.

지난 2021년,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대구 청년에 대한 뉴스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기약 없는 아버지 간병과 생활고 끝에 비극적 선택을 한 청년의 사연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가족 돌봄 청년

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케어러, 빈곤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과 생계, 진로 등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어린 나이에 겪는 돌봄 부담은 자기 개념, 정서, 사회적 능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청년에게 닥친 돌봄은 타 연령대의 돌봄 부담보다 크고, 이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전문 요양보호사조차 건디기 힘든 돌봄 자체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그뿐 아니라 돌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과 함께 학업 병행이 힘들다 보니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기획했고, 신목사회복지관은 양천구에 있는 영케어러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중 부모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다. 대상으로 선발된 청년은 먼저 전문 돌봄 인력인 영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돌봄 서비스와 생계비·의료비·심리 치료비·여가 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심리 정서 지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통해 원하는 맞춤형 전문교육도 받을 수 있다.

돌봄 완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신목사회복지관의 이번 영 케어러 사업은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발적 주민 참여 공동체 조직인 '좋은동행 협동조합'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지원과 사적 지원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주민센터·SOS돌봄센터·교육복지센터·서남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민관 기관과 함께 가족 돌봄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인식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가족 돌봄 청

년 커뮤니티 공간 '청년공감카페(가칭)'를 조성해 가족 돌봄 청년들의 휴식·모임·아르바이트·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카페 수익금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활동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목사회복지관의 주민 돌봄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심리 정서 지원 사업 '청년 공감 플랫폼'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의 롤모델로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 밖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큰 걸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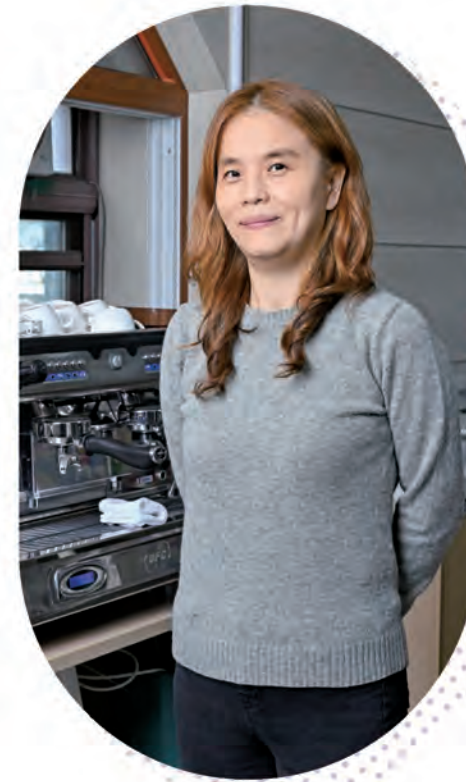


— 수업 현장은 서로의 심리적 지지와 교류의 장이 되어준다.

INTERVIEW

“청년들에게 복지 서비스 관문 역할도”

서울특별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경애 사회복지사



이번 영 케어러 지원 사업을 통해 A 청년은 할머니가 의료 수급을 받게 돼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사례별 맞춤 지원을 통해 반찬 서비스도 받고 있다. 그동안 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을 마친 후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졌다며,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대상 청년 발굴이 가장 힘들었다. 가족 돌봄 청년, 즉 영 케어러에 대해 아직은 우리 사회가 많이 낯설어한다. 그렇다 보니 다른 유관 기관에서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시더라. 결국 주민들이 나서주셨다. 통장님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세대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각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돌무렵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A 청년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할머니 병원비와 간호료 힘들어하고 있었다. 서류상 할머니는 다른 자녀들이 있어 적절한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었다. 물론 다른 자녀들은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았었다.

사업 시행 후 얻은 성과가 있다면?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를 만나보니, 의외로 자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 막연히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단념한다거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단순 지원을 넘어 복지 지원 제도를 알리는 관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300호에 빛나는 경남정보대학교 김대식 총장

“나눔은 이웃에게 전하는 꽃씨, 언젠가 꼭 피어납니다”

힘든 시절을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이들의 심정을 잘 안다. 이웃들에게 가까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자 하는 김대식 총장. 그는 학교를 넘어 세상의 큰 스승이다.

글감은진 사진김기남

가장 영광스러운 이력

부산 사랑의열매 30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남정보대 김대식 총장이다. 김 총장의 가입식은 사랑의열매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000호 탄생과 맞물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물론, 이성권 부산시경제부시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보다 뜻깊은 자리였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또 몰랐던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의미도 있을 테니 고마운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 총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무척 겸손한 자세로 말했다. 이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력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박사 학위만 두 개입니다. 또 공직에 있는 동안 훈장도 두 개나 받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 보니 그 어떤 이력보다 제게 뜻깊게 다가오는군요.”

지독한 가난을 딛고

지난해 경남정보대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대식 총장은 학계와 정계, 문화계를 넘나드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한양대와 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에서 각각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경남정보대 교수, 동서대 교수, 대한일어일문학회장을 지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학술서를 비롯해 시집과 에세이 등 저서만 40여 권에 달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자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며 그야말로 성공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김대식 총장의 빛나는 오늘 뒤에는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그의 피땀과 눈물이 숨어 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늘 여유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있으니까 남도 돕고 하는 거지 하고 말이에요.(웃음) 그런데요, 제가 바로 그 드라마 영화에서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우던 학생이었습니다.”

김대식 총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열다섯 살 되던 해부터 혼자 객지에 나와 어렵게 고학을

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부딪가에서 밀바닥 생활을 하며 울면서 주경야독을 했다. 어찌나 가난했는지, 한겨울 뽕뽕 언 손을 녹일 따뜻한 것이라곤 오줌밖에 없었다고 비유할 정도였다.

평생 잊지 못할 그 밤의 온기

김대식 총장의 나눔은 화려한 이력 못지않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전부터 교육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은 물론, 다른 타 대학까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이 금액만 수억에 달한다. 또 매년 소외 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해 연탄 기부 및 봉사, 김장 봉사 등을 해오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은 결국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돌입니다. 누군가와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 곁으로 아름답게 다시 돌아옵니다.”

고 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둔 김대식 총장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나눔 교육을 시켜왔다. 삼 남매는 용돈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씩 각 복지 기관에 정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던 김 총장이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이들”이라며 처음으로 자랑을 했다.

“제가 어렵게 고학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때 작은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난방이 어디 있나요. 겨울에도 냉방에서 베개 하나 끌어안고 털털 떨며 잤지요. 그런데 하루는 참 따뜻하게 푹 잤어요. 알고 보니 주인집 따님이 제가 안됐는지 연탄 한 장을 몰래 넣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난리가 났다. 나한테 몰래 연탄을 줬다고 주인집 딸이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었던 것. 미안한 마음에 김 총장은

그날로 그 집을 나왔다. 반드시 성공해 그 연탄 한 장 값은 꼭 갚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다.

내 혈액형은 긍정형

냉골 땅이 어디 소년의 몸만 떨게 했을까. 분명 그 마음까지 차가운 현실 앞에 떨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건 한 사람의 배려가 담긴 연탄 한 장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날의 따뜻한 온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눔의 소중함을 알죠.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그때 한 거고요.”

김대식 총장은 자신이 대학에서 누구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줄 아느냐며,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누님들 보는 마음도 들어 김장이라도 하면 수육까지 삶아 와서 다 드시라고 한다. 그런 마음이 연탄 한 장을 방에 넣어준 주인집 여학생에게서 시작됐다면서 말이다. “누가 제 혈액형을 물으면 저는 긍정형이라고 답합니다.(웃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또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다르죠. 노력만으론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눔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이 그 기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 말도 덧붙였다. 나눔에 대한 철학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청년들을 생각하는 김대식 총장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연탄 한 장의 온기에서 시작한 그의 나눔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



명성 자자한 착한가게

아는 사람만 찾는 진짜배기 경기 북부 맛집

이번엔 경기 북부다. 파주를 비롯해 남양주, 양주, 포천, 구리 등 알짜배기 맛집이 즐비하다. 제대로 된 한 끼를 위해 찾아가보자.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그야말로 원주민 맛집 상배베이커리

- 📍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284 명인빌딩
- ☎ 031-945-4077
- 🕒 월~토요일 08:00~22:00(일요일 휴무)

모든 게 맛있는 빵집이다. 단골마다 제각각 다른 최애 빵이 있다. 상배베이커리가 위치한 파주시뿐 아니라 일산이나 김포, 인천 등에서도 원정을 온다. 2020년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 빵을 협찬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특히 100% 동물성 생크림만으로 만드는 케이크가 일품! 초코 시트에 사워 체리 시럽을 덧발라 상큼한 기리쉬 케이크와 딸기 농장에서 직접 공수받은 싱싱한 딸기로 만든 딸기폭탄 케이크, 후숙 잘된 애플망고를 듬뿍 올린 망고 케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무화과를 와인에 절여 만든 무화과 파운드, 치즈와 햄·야채가 알차게 들어간 샌드위치, 달콤한 몽블랑에 빅 사이즈 호두&에그타르트까지 맛있는 빵 천국이다.



낙지볶음의 절대 강자 으뜸착한낙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충현로 28 ☎ 031-952-7200
 🕒 매일 11:30~22:00(브레이크타임 주중 15:00~17:00,
 주말 15:00~15:30)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 근처에 자리한 낙지 전문점이다. 넓은 주차장에 황토로 지은 이색적 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어 편하고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다. 상호처럼 대표 메뉴는 낙지볶음이다. 불 맛 가득한 양념이 입맛을 돋운다. 맵기 조절도 가능해 누구나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또 싱싱하고 쫄깃한 낙지가 들어간 낙지만두, 낙지와 새우가 듬뿍



올라간 바삭한 낙지해물파전까지 다양한 낙지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우튀김, 돈가스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와도 좋다. 새콤한 미역국, 부드러운 순두부, 콩나물 등 기본 찬도 요리와 어울림이 좋은 구성이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재방문 100% 맛집이다.



장인이 만든 음식 용암리 막국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평화로1889번길 46-12
 ☎ 031-859-6223 🕒 월·수~일요일 11:00~20:00
 (브레이크타임 16:00~16:30, 화요일 휴무)

이곳의 음식은 하나의 작품에 가깝다. 손 많이 가고 까다롭다는 치대기 방식으로 반죽해 메밀의 구수함을 최대한 살린 면은 하루 최소 세 번, 많게는 10여 번씩 바로바로 반죽해 만든다. 게다가 긴 시간 진하게 우려낸 육수, 이곳만의 비율로 감칠맛을 극대화한 고추장으로 만든 다진양념, 100% 양조간장에 표고버섯·멸치·다시마 등을 넣고 달인 간장까지 모두 직접 만든 걸 사용한다.

들나물막국수에 사용하는 부지깥이나물은 울릉도에서 공수받는다. 들기름과 참기름도 매주 두 번씩 직접 짜서 사용하니 그 향이 남다르다. 메밀손만두 역시 당일 아침 직접 빚고, 돼지고기 수육도 소량씩 자주 삶아내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용암리막국수는 모든 메뉴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한다. 🍷



새나라, 새일꾼 신입직원 김예설

Yes, sir!

마지막화
희망2023나눔캠페인 제막!



글·그림 오동진



지금까지 예설이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설이의 직장생활을 응원해주세요!

The End.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전한 따뜻한 응원

국회의원실 착한일터 1호 강훈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2022년 11월 29일, 강훈식 국회의원과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등 10명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앞두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자 나눔을 실천한 것. 이로써 강훈식 의원실은 국회의원실 1호 착한일터로 가입하며 의미를 더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회적 약자에게 당장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눔문화가 다시금 확산되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제20·21대 국회의원 강훈식



(왼쪽부터)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강훈식 의원,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국회의원실 최초로 착한일터에 가입한 강훈식 의원(가운데)과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2022년 1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 강훈식 국회의원실에서 강훈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일터 가입식을 진행했다. 강훈식 의원은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착한일터 가입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많은 사랑이 모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훈식 의원과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등이 뜻을 모은 것. 가입식에 함께한 조흥식 회장은 “강 의원님 의원실의 착한일터 국회의원실 1호 가입이 마중물이 되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여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우리금융미래재단 민관 협약 체결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연결 고리

2022년 12월 21일 사랑의열매와 보건복지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고자 세 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랑의열매 이연배 부회장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챙기겠습니다.”

-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

협약식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우리금융미래재단 손태승 이사장과 사랑의열매 이연배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보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사회인이 학습 및 정서적 지원 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중심의 선순환 멘토링', 자립준비청년이 서로의 든든한 자립 동행자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랑의열매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기부금 운용 및 배분 등의 역할을,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 기획·운영에 자문 제공과 사업 홍보 등을 맡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며 참여 활성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

“사회인 멘토와의 만남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회 곳곳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며,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이연배 부회장

4년째 인세 기부하는 前 OB맥주 장인수 부회장

“진심을 전합니다”

2019년부터 인세와 강연료를 모아 기부하고 있는 장인수 전 OB맥주 부회장의 훈훈한 진심 스토리.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기부금 전달식의 장인수 전 OB맥주 부회장(왼쪽)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나눔, 앞으로도 이어갈 것

장인수 전 OB맥주 부회장의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2월 7일, 장인수 전 부회장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자신의 저서 <진심을 팝니다> 인세와 강연료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진심을 팝니다>는 장인수 전 부회장의 영업 비법을 정리한 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인세와 강연료를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해왔다. 서울 나눔리더 56호이기도 한 장인수 전 부회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보태고 싶어 이번에도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내가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꾸준히 전하며 나눔 또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님은 후배들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나누어주고 계신 진정한 나눔리더”라며, “어려운 시기인데도 연말연시가 되면 매년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한 중학교 친구들

동아리 친구에서 나눔 친구로

장애인복지관의 청소년 동아리에서 만난 중학생 친구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태훈, 김도현, 유지훈 학생 외 가족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김태훈



나눔 하면 ‘사랑의열매’가 생각납니다.

김도현



몸이 아픈 친구를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유지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싶었습니다.

평소 열매등이 좋아해

열매등이를 좋아하는 중학교 친구들이 뜻을 모아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현, 김태훈, 유지훈 학생이다. 2022년 12월 6일, 세 학생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관의 청소년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을 모았고, 복지관 선생님과 부모님의 추천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며칠 동안 기부 소감 발표를 연습했다는 학생들은 평소에도 열매등이 SNS를 좋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자마자 바로 사랑의열매를 떠올렸다고 한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희망을 나누는 학생들의 손길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같다”며, “이 뜻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나눔캠페인 판매 수익금 기부 및 홍보
앞장서는 인천탁주

“행복한 인천, 함께 만들어요!”

지난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에도 인천탁주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다. 행복한 인천을 위한 따뜻한
노력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인천 사랑의열매 캐릭터와 QR코드가 인쇄된 소성주

착한소비 견인차

인천탁주(대표 정규성)가 소성주 라벨을 이용해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홍보하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인천탁주는 지난 캠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캠페인 기간 동안 제조하는 소성주 310만 병 라벨에 기부 참여안내와 QR코드를 삽입해 희망2023나눔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핸드폰으로

소성주 라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 기부가 가능하다. 인천에서 자체 생산품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부착해 나눔캠페인을 홍보한 사례는 인천탁주가 처음이다. 소성주 판매 수익금은 인천 지역 소외 계층 돌봄과 함께 소성사회복지사상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는 “캠페인 기간에 제조하는 소성주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도 동참하게 됐다”면서, “인천탁주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펼치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탁주는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대표 막걸리 생산 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쌀막걸리를 출시했다. 또 사회복지사 공로를 치하하는 소성사회복지사상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 인천 사랑의열매에 10억 원가량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소성주를 들고 사진 촬영 중인 인천탁주 직원들



이웃사랑 성금 기부한 인천 노현중학교·송천초등학교 연합봉사단

봉사 통해 기부까지

중학교, 초등학교 연합봉사단
학생들이 지역 축제 체험 부스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다.

글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주민과 함께 마련한 성금

인천 노현중학교, 송천초등학교 연합봉사단 학생들이 이웃사랑 성금 2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노현중학교, 송천초등학교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연합봉사단이 남동북 지하마당 지역 축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얻은 판매 수익금이다. 봉사단 학생들은 축제 부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드 물품을 체험하도록 하고 직접 만든 빵을

판매했다. 노현중학교 교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노현중학교 이석원 교장은 “봉사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노현중학교 봉사단원 중 한 학생은 “봉사가 나에게 준 행복을 기부로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

무처장은 “지역 축제 체험 부스에서 얻은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노현중학교, 송천초등학교 연합봉사단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면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노현중학교 이석원 교장(가운데) 및 연합봉사단 참여 학생들



연탄 배달 봉사 나선 에스디바이오센서

따뜻한 이웃사랑 선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임직원들의 나눔 열정은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들의 추운 마음까지 훈훈하게 녹여주었다.

글 김현정 사진 경기사랑의열매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임직원들



연탄불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하고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2022년 12월 9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마을을 찾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임직원 30여 명은 한 가구당 500장씩 총 네 가구에 2,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창고가 주로 좁은 골목 뒤편에 자리 잡은 탓에 손에서 손으로 한 장 한 장 연탄을 날라야 했지만, 직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서로를 응원하며 봉사 활동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찬 바람이 불면 난방 걱정부터 앞서는 이웃에게 연탄은 무엇보다 큰 선물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임직원들이 나른 연탄에 담긴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 이번 겨울 이웃의 몸과 마음이 훈훈하게 채워지리라 기대해본다.

이웃의 건강한 삶 지켜내고파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만큼 지난 2020년부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 9월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며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8호로 가입한 이후 같은 해 연말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2021년엔 아동·청소년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지금까지 현금 3억 9,000여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을 기탁하며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지키는 데도 일조해왔다.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지역과 복지 사각지대를 향한 깊은 관심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이들의 나눔을 응원한다. ♡



조심스러운 손길로 연탄을 전하는 직원들 모습



추운 겨울 이웃의 건강을 지켜줄 연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에스디바이오센서 이효근 대표이사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에스디바이오센서 허태영 대표이사

목표액 초과 달성하며 나눔으로 뚝뚝
뚝친 시민의 힘 보여줬다

2022 포천시 이웃 돕기 모금 생방송

포천 시민이 모금 방송을 통해 나눔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목표액 초과 달성이로 이어졌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생방송 봉사활동 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백영현 포천시장

‘100인의 나눔 릴레이’ 펼쳐

2022년 12월 1일, 포천시 포천체육공원에서 <2022 포천시 이웃사랑 모금 생방송>이 진행됐다. 이번 모금 행사는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백영현 포천시장, 서광석 포천시의회장, 시의원, 도의원, 포천상공회의소장을 비롯

해 기업 대표, 읍·면·동 기관 단체장, 어린이집 원생들, 고등학생 등 포천시 각 계각층 시민이 참여했다. 방송 모금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LG헬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후원했다. 방송 당일에는 ‘100인의 나눔 릴레이’ 1호 기부자 백영현 시장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기부가 이어져 당초 목표한 방송 모금액 2억 5,000만 원 대비 200%에 해당하는 약 5억 원이 모금되었다. 이는 나눔으로 뚝뚝 뚝친 포천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 밖에도 포천시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모금액이 전달되었으며, 포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이 하나가 되어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포천시 소상공인들이 제조한 건강식품으로 꾸러미를 꾸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과 이웃 모두를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 활동도 펼쳐졌다. 🍀

생방송 무대에 올라
성금을 전달하는
예원노블키즈
어린이집 원생들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진행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연말연시 나눔 대장정 시작돼

나눔은도 100도 달성을 위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 대장정이 시작됐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이웃 돕기 집중 모금

2022년 12월 1일 남양주시청에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이 있었다. 이로써 나눔 목표액 1%가 나눔은도 1도로 표시되며 100도를 달성해가는

나눔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의 이번 캠페인 목표액은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 증가한 62억 2,000만 원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집중 모금한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계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송 모금, QR 코드를 통해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 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적극적으로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사랑의온도탑은 남양주시청 광장과 파주 시금촌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다. 🍀

남양주시청에서 진행한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기념사진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으로 나눔 대장정에 나선 강원 사랑의열매

강원도청 앞 광장에 설치한 사랑의온도탑. 사진은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기념 촬영 모습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

강원 사랑의열매가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거행한 뒤 본격적인 이웃 돕기 모금을 시작했다.

글강은진 사진강원 사랑의열매

출범식 통해 목표 달성 기원

2022년 12월 1일, 강원 사랑의열매가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이날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시장과 강원랜드, (주)더존비즈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주요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출범을 선언하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막식 오프닝 공연에는 팝 소프라노 민응홍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연'을 부르며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하며, 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온도탑은 춘천 공지천 사거리에 설치해 도민의 나눔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의 나눔 목표액은 83억 6,000만 원이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출범식에서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첫날부터 기업·개인 기부 이어져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1호 기부자는 강원랜드였다. 이어 (주)더존비즈온도 이웃 돕기 성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주)현대메디텍 송미희 대표가 나눔명문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에 동시 가입하며 1억 1,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희망2023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성원 덕분에 나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한 해 동안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면서, "추운 겨울,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나눔명문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에 동시 가입한 (주)현대메디텍 송미희 대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전개된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사랑의온도는 총 94억 8,400만 원의 모금액으로 목표인 72억 7,4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 초과해 130도를 기록한 바 있다. 🍀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에 참여한 주요 기부자

- 강원랜드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회 공헌 성금
- (주)더존비즈온 1억 5,000만 원
- (주)현대메디텍 나눔명문기업 & 송미희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 이상욱·신정예 부부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부부 아너 가입
-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1,000만 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500만 원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300만 원
- 춘천시 나눔봉사단 100만 원

함께 나눔은도 높이는 행복 도시 세종

희망2023나눔캠페인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모금 전개

세종 사랑의열매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 2022년 12월 12일부터 16일 동안 읍·면·동 순회 모금을 전개했다. 읍·면·동 11곳은 제각각 특색 있는 모금을 진행했다는 후문. 그중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뜨거운 성원을 보낸 특별한 나눔 현장 분위기를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1 직접 모은 성금 38만 원과 라면을 전달한 소정초등학교 학생들
2 조치원읍에서 진행한 기부 챌린지 나눔캠페인

조치원읍 '기부 챌린지 나눔캠페인'

하루 동안 진행되는 다른 읍·면·동 순회 모금과 달리 조치원읍에서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기부 챌린지를 전개했다.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회째 진행 중인 기부 챌린지는 내가 먼저 기부하고, 주변 지인에게 기부를 제안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기부 문화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앞서 2020년 2,260여만 원, 2021년 3,15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성공적인 모금 캠페인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 12월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열린 기부 챌린지 나눔캠페인 선포식 당일부터 많은 읍민이 나눔에 동참하는 등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소정면 '순회 모금 행사'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 12월 13일 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순회 모금 행사에서 함께 진행한 기부 콜 챌린지

순회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당일 10여 곳의 기부자가 성금을 전달했다. (주)센텐트 500만 원, 세종첨단일반사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150만 원, (주)건우EMC 100만 원 등 기업뿐 아니라 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모은 38만 원과 라면을 전달하며 나눔온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탤다. 조치원읍과 소정면을 시작으로 대평동, 연동면, 금남면, 고운동, 연기면, 해밀동, 도담동, 아람동, 부강면까지 총 11곳이 차례로 순회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성금은 세종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전달해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부는 참재미있다 '기부 콜(CALL) 챌린지'

한편,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모금 현장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 콜 챌린지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하고자 고안한 것. 휴대전화로 ARS 060-700-1103에 전화를 걸어 2,000원을 기부한 후 기부 콜 챌린지 피켓을 든 기부 인증샷을 찍고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챌린지 덕분에 현장 곳곳에선 웃음이 만발하며 한층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후문이다. 🌸

희망2023나눔캠페인 찾아가는 연동면 순회모금 행사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2965호(서울 362호)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 사는 세상, 제가 받은 체온과 사랑을 저에게서 끝내지 않고 옆으로 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통로와 다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3022호(서울 366호)



서정연

"나눔은 내 삶의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입니다."

전국 3024호(제주 131호)



고경민 안전LPG충전소 대표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전국 3026호(제주 133호)



심윤주 하나약국 공동대표

"나눔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전국 3031호(울산 115호)



이재원 유진약국 대표약사

"낮은 곳으로 향하는 나눔은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전국 3033호(부산 301호)



이광웅 광혜병원 이사장

"나눌 수 있다는 기쁨, Humble Mind(겸손한 마음)."

전국 3035호(충북 71호)



노무수 한국합섬(주) 대표이사 회장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아지길 바랍니다."

전국 3019호(서울 365호)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나눔은 따뜻한 마음을 잇는 봉사입니다."

전국 3023호(광주 150호)



김홍균 남산석유(주) 회장

"나눔은 받는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전국 3025호(제주 132호)



강정숙 前 제주대학교 교수

"나눔은 위안입니다."

전국 3030호(울산 114호)



임미화 싱글빙글꽃집 대표

"싱글빙글꽃집을 사랑해주신 울산 시민을 대신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전국 3032호(부산 288호)



조성태 경원개발(주) 회장

"나눔이라는 씨앗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전국 3034호(부산 302호)



윤정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037호(광주 149호)



최무진(주)나눔테크 대표이사

"인간 중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나눔테크라는 회사명처럼 나눔으로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전국 3038호(광주 151호)



강대귀 더블유아이건설(주) 회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기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040호(전북 92호)



故 류양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나눔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 3043호(부산 303호)



강병형 광도한의원 대표원장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지 꿈만 꾸고 있지 않는다면..."

전국 3046호(세종 23호)



박준호(주)키움 대표이사

"공수레공수거."

전국 3048호(서울 369호)



김준성(사)조은친구들 이사장

"공유(共有)·만인주공(萬人主公)·무유정법(無有定法)."

전국 3050호(세종 24호)



김시유(주)태명산업개발 대표이사

"나눔은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전국 3069호(대전 103호)



왕조걸 왕조걸한방병원 병원장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039호(광주 152호)



심창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3041호(제주 134호)



강태중 한신이엔씨 대표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꿈꿉니다."

전국 3044호(부산 304호)



강경희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국 3047호(대구 212호)



서순옥 미래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3049호(대구 213호)



이승욱 카페봄봄 대표

"사랑과 행복 나눔의 마중물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널리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전국 3068호(울산 116호)



박준연 건진산업(주) 대표

"세 개를 가지면 두 개를 나누어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행복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입니다."

충남 박승찬상남건설(주) 회장

경기 김부섭 현대병원 원장, 유보경 현대병원 이사,
조성택 유민스테인레스 대표, 유영례 초대한정식 대표

중앙회

SK그룹,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성금 120억 원 쾌척

SK그룹이 성금 12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22년 12월 14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SK SUPEX추구협의회 SV(소셜벨류)위원회 조경목 위원장, 김광조 부사장, 사랑의열매 조홍식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SK그룹의 이번 성금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K그룹은 1999년 사랑의열매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다. 지난 2012년부터는 매년 1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또한 SK그룹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푸르메 소셜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및 정책 개선 지원 사업 '행복얼라이언스'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착한일터에 가입해 기업과 직원이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인 배동성·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 나눔리더 가입

방송인 배동성과 요리 연구가 전진주 부부가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부부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배동성·전진주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 '배동성&전진주의 정법TV'(이하 정법TV)를 운영하며 제철 요리 레시피와 생활 꿀팁 등을 공유해왔다. 2022년 11월에는 정법TV의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감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콘서트에 참여한 구독자들의 성금과 배동성·전진주 부부의 기부금을 합쳐 총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방송인 배동성은 "아내와 함께 기부하는 첫해라 더욱 뜻깊다"며 "내년, 내후년에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요리 연구가 전진주는 "남편과 대화하며 기부에는 금액보다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좋은 경험을 함께 만든 남편과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이디야커피, 5,000만 원 상당 연탄 및 식품품 전달

이디야커피(회장 문창기)가 2022년 12월 6일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임직원 봉사 활동 '2022 이디야의 동행'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이디야커피가 한 해 동안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2010년부터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나눔 활동이다. 올해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 188가구에 연탄, 쌀, 간편식 등을 전달했다.



(주)아나두, 유아 영어 전집 1,000세트 기부

운동 및 교육 중심의 메타버스 기업 (주)아나두(공동대표 김정수, 김민철)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6억 1,000만 원 상당의 유아 영어 전집을 기부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전달했다. 김정수 공동대표는 "아나두가 운영하는 모바일 유아동 교육 플랫폼 아나두 키즈 10.0 버전 출시를 기념해 기부를 실천했다"며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나눔명문기업 6개소 공동 가입

2022년 12월 1일 부산 사랑의열매가 진행한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행사에서 부산 지역 6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수정안과, (주)삼정기업, 고려제강(주), 송우산업(주), (주)비라이트, (주)보명금속의 가입으로 부산 나눔명문기업은 48개소로 늘었다. 부산 사랑의열매 최궁식 회장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택 남구청장, 부산 최초 3대 가족 나눔리더 가입

평소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온 오은택 남구청장이 아버지인 오재덕 씨, 형님 오성택 씨, 아들 오범록 씨와 함께 각각 부산 나눔리더 12~15호로 가입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기 부산 지역 기초 단체장 중 처음으로 나눔리더가 됐다. 또한 이들의 가입으로 부산 최초의 가족 3대 나눔리더가 탄생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대구



(주)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 김장김치 나눔
 (주)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본부장 이범로)이 김장 김치 5,000 포기를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김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에 실어 대구 시내 2,500가정에 배송했다. 이범로 본부장은 "앞으로도 나눔으로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나눔 메시지를 전했다.



(주)티앤테크 이재훈 대표이사, 나눔리더 가입
 (주)티앤테크 이재훈 대표이사가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맞이해 200만 원을 기부하며 대구 나눔리더 88호로 가입했다. 평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이재훈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 침체로 기부가 주춤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워하던 중 정화실업이 인호 대표의 권유로 나눔리더에 동참했다. 그는 "많은 대구 시민이 이웃에게 온정의손길을 내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 회원사 일동이 광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기섭 회장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눔과 봉사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아너 회원, 아이들 위해 산타 변신
 광주 사랑의열매가 2022년 12월 15일 무등육아원을 찾아 '2022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산타로 변신한 아너 회원들은 광주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준비한 2,000여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정성스럽게 작성한 카드를 무등육아원 49명의 아이에게 전달했다.

인천



(주)더조은홈, 나눔으로 지역 사랑 실천
 수납용품 전문 제조 판매업체인 (주)더조은홈(대표 이미리)이 인천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2년째 기부에 참여한 것. 성금은 인천 지역 취약 계층 돌봄 사업에 쓸 예정이다. 이미리 대표는 "나눔을 통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며, 정직하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인천대교, 자립준비청년 위한 성금 전달
 (주)인천대교(대표이사 박종혁)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시설 퇴소를 앞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인천대교는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연탄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인천대교 희망이기 사업'을 통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



왕조걸한방병원 왕조걸 병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왕조걸한방병원의 왕조걸 병원장이 희망2023나눔캠페인 시작과 함께 아너에 가입하며 대전 사랑의열매 103호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왕조걸 병원장은 셋째 자녀의 돌을 맞아 아이의 건강을 기원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아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꾸드뵙, 나눔빵 캠페인 업무 협약 체결
 베이커리 꾸드뵙(대표 정성한)이 대전 사랑의열매와 '나눔빵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00일간의 나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꾸드뵙의 빵에 사랑의열매 로고가 들어간 나눔 빵을 꽃아 시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고취하고자 기획했다. 한편 꾸드뵙은 매월 정기 기부에 참여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빵을 기부하는 등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



아름상가시장상인회, 김장 김치 150박스 전달
 2022년 12월 5일 울산 아름상가시장 상인회가 500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 150박스를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김치는 울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서동욱 남구청장은 "상인회가 정성스레 담긴 김치가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다가갈 바란다"며 "전통시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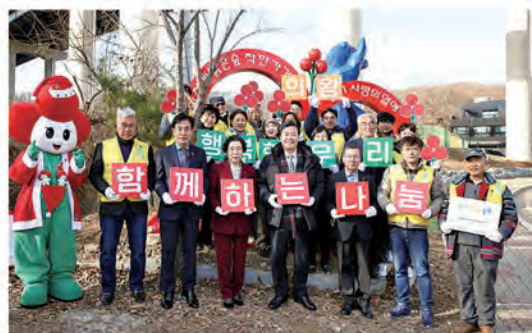


문수청소년센터 청소년 일동, 공모전 수상금 기부
 문수청소년센터(관장 임숙희)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울산시에서 주최하는 '트램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받은 상금 5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상금은 울산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임숙희 관장은 "학생들이 노력해 얻은 상금을 기부하자고 제안한 마음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며 "아이들 마음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경기애향회, 이웃 돕기 성금 기탁
 경기애향회(회장 신현태)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경기애향회는 2014년부터 8년 연속으로 기부를 실천하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안성시 소재 발달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전달했다. 신현태 회장은 "회원들의 뜻이 담긴 성금을 전달해 기쁘며,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착한가게·나눔거리 선포식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2년 12월 8일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 일원에서 착한가게·나눔거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은 2022년 6월, 7개소의 착한가게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7개 가게가 가입해 이번에 착한가게·나눔거리로 새롭게 탄생했다. 선포식에서는 신규 가입한 착한가게에 현판을 전달하고, 조형물 제작식과 카드섹션 등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북부



(주)1.2.3골프클럽, 사랑 담은 성금 전달
 (주)1.2.3골프클럽(대표 한제걸)이 고양시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온정을 전했다. 고양시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서 2000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주)1.2.3골프클럽의 누적 기부 금액은 약 1억 1,554만 원에 달한다. 한제걸 대표는 "지역사회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파주상공회의소, 이웃 돕기 성금 기탁
 파주상공회의소(회장 박종찬)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1억 4,967만 원을 기탁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매년 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관내 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생활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찬 회장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동전 모아 행복 전달
 춘천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함수연)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공공형어린이집 21개소에서 진행한 '동전 모아 행복 전하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함수연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동전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1,000만 원 상당 백미 기탁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본부장 고명환)가 강원 지역 취약 가구를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강원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10kg짜리 백미 320포는 춘천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고명환 본부장은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이 맛있는 밥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농협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한국병원 송재승 병원장, 충북 70번째 아너 회원

2022년 12월, 충북 1호 아너 회원이 가입한 지 12년 만에 충북 70호 아너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한국병원 송재승 병원장이다. 청주 출신인 송재승 병원장은 前 대한병원협회 충청북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8년 제36회 보건의 날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직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합섬(주) 노무수 회장,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한국합섬(주) 노무수 회장이 충북 사랑의열매 기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청주범죄피해지원센터 고문인 노무수 회장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하고, 범죄의 늪에 빠진 학생의 학비와 생계비를 후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특히 관심을 갖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주)도원이엔씨, 성금 3억 7,000만 원 쾌척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도원이엔씨가 충남 사랑의열매에 성금 3억 7,0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성우중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환원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홍보하는 등 충남 지역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엄경일 부사장, 나눔리더 가입

한국서부발전(주)의 박형덕 사장과 엄경일 부사장이 충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617호와 636호로 각각 가입해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국서부발전(주)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극복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박형덕 사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주)참고을, 김제시에 1억 원 전달

식품 제조업체 (주)참고을(대표 김윤권)이 김제시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전북 1호 나눔명문기업인 (주)참고을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윤권 대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며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3개소, 김치 및 연탄 나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라북도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3개 기관은 2,400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를 670세대에 전달하고,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 24세대에 연탄 7,300장을 전달했다. 김정렬 사장은 “추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 3억 원 배분

전남 사랑의열매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배분했다. 2022년 12월 7일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노진영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한 뒤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300여 개소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성금 1,000만 원 기탁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경준)이 희망2023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전라남도 내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임경준 이사장은 “매서운 한파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에 이동 세탁 차량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가 청송군에 이동 세탁 차량을 전달했다. 2.5톤 화물차에 세탁기 3대, 건조기 1대를 설치한 특수차량으로,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청송군 지역 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이주민 등 취약 계층 가구를 찾아 세탁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청도소방서, 119 청도수호 행복기금 착한일터 업무 협약체결

청도소방서가 경북 사랑의열매와 '119 청도 수호 행복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착한일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재 등 재난과 사고로 긴급하게 도움을 손길 필요할 청도군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은 청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하루에 119원씩 기부해 조성하며, 청도소방서가 대상자를 추천하고, 경북 사랑의열매가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따뜻한 겨울나기 상품권 기탁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2억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LH는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홀몸 어르신들이 겨울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LH 하승호 본부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모트롤 임직원, 기부금 모아 디딤씨앗통장 후원

(주)모트롤(대표 권영민)이 창원시 관내 아동 양육 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2,381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후원금은 임직원 96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했으며, 향후 1년간 6개 아동 양육 시설 보호 아동 100여 명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2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돈사돈 양정기·김순덕 대표, 제주 아너 최고 기부액 달성

부부 아너 회원인 돈사돈의 양정기·김순덕 대표가 2022년 12월 13일 제주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두 아너는 누적 기부금 6억 원을 달성하며 제주 아너 최고 기부자가 됐다. 또 이들은 착한가게를 통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나누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모금 역량 개발 교육' 결과 공유회 진행

제주사랑의열매가 지난해 9~10월 내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금 제안 기획 실습과 멘토링 활동으로 구성된 모금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29일 결과 공유회를 열어 교육 경과 및 모금 제안 기획 우수사례 공유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강사진 코칭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모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송년의 밤 개최

세종 사랑의열매가 지난 12월 22일 '2022년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가입 후 1억 원을 완납한 아너 회원 1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일에 아너 회원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너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흥덕산업(주), 세종 7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흥덕산업(주)(대표이사 김윤회)가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7호로 가입했다. 흥덕산업(주) 김윤회 대표이사는 세종 3호 아너이며, 부인 황종분 씨 또한 세종 21호 아너로 가입한 바 있다. 김윤회 대표이사는 "지역의 나눔문화 발전과 법인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며 "아너와 나눔명문기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2022년 3월에 진행된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힐링 문화 여행 펀딩 후기를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체험 학습 기회가 별로 없어 아쉬웠는데,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고 보는 펀딩 후기

“한국도, 또래 친구들도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예요”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많습니다. 한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교육과 함께 문화 체험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문화 체험비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학생 12명은 잠실 롯데월드로 향했습니다. 한국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화 체험을 이들도 경험해보고자 한 것이지요, 짜릿한 놀이 기구도 타고, 화려한 볼거리도 구경하며 청소년들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험 이후 서먹하던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낯설기만 하던 한국도 조금은 가깝게 느껴진다고 입 모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툰 한국말이지만, 펀딩 기부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부모님은 “오늘 학교생활 어땠니?”라고 물으며 반겨 준다. 바쁜 일과 중에도 문득 연인 또는 가족은 지금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사랑의열매도 홀로 사는 어르신, 방학을 보내는 결식 우려 아동, 재가장애인, 위기 가정 등 우리 이웃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 누구도 쓸쓸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피며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